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3년 11월 14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1. 카페 개설

- ▶ 저희 학회를 위한 “다음카페”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주소: cafe.daum.net/ksli
아직은 내용이 빈약하지만 앞으로 많이 채워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 ▶ 자격: “다음” 회원이 아닌 분은 댓글을 달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도 하시고 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활용: 앞으로 공유할 자료 등을 여기에 올려 놓을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언어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언어 자료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으시면, 질문지를 올려놓으시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학회와 관련된 질문도 좋고 공유하고 싶은 소식도 좋습니다. 또한 국내 언어학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자료 조사와 같이 모든 회원님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면 게시한 글의 주소를 “복사”(글의 오른쪽 상단)하여 “카페지기 (kslicafe@daum.net)”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회원님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다음카페” 혹은 “다음앱”을 받으시면 수시로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정기학술대회 개최

- ▶ 2013년 정기학술대회가 10월 19일-20일에 경북대학교에서 ‘대화원리와 정보처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론언어학, 전산언어학과 심리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총 17편의 참신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된 연구의 [언어와 정보]에의 투고를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11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11월 23일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권나영 선생님(건국대)의 기획논문 발표와 이해운 선생님(한국외대)과 박철우 선생님(안양대)의 일반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정소우 선생님(성신여대)께서 ‘함축과 전제(implicature and presupposition)’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4.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3년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7권 2호 (2013년 12월 31일 발간): 2013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제18권 1호 (2014년 6월 30일 발간): 2014년 4월 15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 연회비로 3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2013년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용(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량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강상구(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김미숙(상지대), 염재일(홍익대), 이기황(다음소프트), 이영주(서울여대), 이용훈(충남대), 이은미(동신대), 이정미(서울과학기술대), 이정민(서울대), 임동식(홍익대), 임서현(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영한(인하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승권(ETRI), 최윤희(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 준회원: 구현모(충남대), 김미지(배재대), 김송희(서울대), 박은영(충남대), 송지나(서울대), 윤지현(충남대), 한희우(충남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학기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왼쪽으로 돌

아나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11월 23일: 제1캠퍼스 진리관 212호에서 열립니다 (아래 지도 4번). 정문에서 (10번) 학생회관과 (8번) 행정관을(7번) 지나 왼쪽으로 돌아가다가 새힘관 (6번)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문에서 3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 ▶ 12월 14일: 제1캠퍼스 순현관 322호 (1번). 정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8. 학술대회 안내

- ▶ [CFP] The 10th Workshop on Altaic Formal Linguistics (WAFL 10)
 - 일시: 2014년 5월 2일~4일
 - 장소: MIT, US
 - 사이트: <http://lingalert.com/2013/07/03/wafl-10>
 - 초록마감: 2014년 1월 15일

- ▶ [CFP] The 7th Conference on Language, Discourse and Cognition
 - 일시: 2014년 5월 3일~4일
 - 장소: Taipei, Taiwan
 - 사이트: <http://homepage.ntu.edu/th/~cldcntu>
 - 초록마감: 2013년 12월 20일

- ▶ [CFP]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Grammar
 - 일시: 2014년 9월 3일~6일
 - 장소: Osnabrück, Germany
 - 사이트: <http://www.blogs.uos.de/iccg8>
 - 초록마감: 2014년 2월 1일

한국언어정보학회 2013학년도 11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11월 23일 9:30 – 11:45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 10:30	기획	권나영 (건국대)	The effect of structural variations on dependency formation	전영철 (서울대)
Coffee Break (15분)				
10:45 11:15	일반	이해윤 (한국외대)	어말 어미 ‘-지’의 의미와 common ground	
11:15 11:45	일반	박철우 (안양대)	한국어 부정소의 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11월 23일 14:00 – 15:30 주제: 함축과 전제 (implicature and presupposition)

발표자	정소우 (성신여대)
논문	Potts, Christopher. 2012. Conventional implicature and expressive content. In Claudia Maienborn, Klaus von Heusinger, and Paul Portner, eds., <i>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i> , Volume 3, 2516-2536 Berlin: Mouton de Gruyter.

	Potts, Christopher. 2013. Presupposition and implicature. To appear in Shalom Lappin and Chris Fox, eds., <i>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i> , 2nd edition. Oxford: Wiley-Blackwell.
--	---

2013년 11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논문>

The effect of structural variations on dependency formation

권나영 (건국대)

Linguistic theorizing has aimed at differentiating language-universal properties (i.e., properties shared by all known languages) vs. language-specific properties (i.e., properties that are specific to individual (groups) of languages). Likewise, previous neurophysiological studies have attempted to find language universal vs. language-specific processing mechanisms in the brain,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how th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various human languages can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universal cognitive substrates. In the context of this broader topic of research, this study explores universal and specific aspects of language processing mechanisms underlying the processing of long-distance dependencies with different surface features.

The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as in English relatives and *wh*-questions has been characterized as filler-driven parsing, such that upon encountering a filler, the parser postulates a gap immediately, despite the temporary structural ambiguity of the gap (active filler strategy: Frazier & Clifton, 1989). In terms of neuro/cognitive processes, filler-gap dependencies were assumed to incur processing costs related to maintaining a filler in working memory in expectation of an upcoming gap and to reactivating the filler at the gap position in a later sentential position. In Experiment 1, we investigated the processing of long-distance dependencies in Korean, a typologically different language from English by using event-related brain potentials. Korean relative clauses are different from English counterparts in several aspects; i) in Korean relatives, gaps precede fillers, but ii) a gap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that there will be a filler downstream, as iii) argument-drop is prevalent in Korean. In addition, while all these structural features also apply to Japanese and Chinese relative clauses, the three East Asian languages differ in terms of i) consistent headedness (Japanese & Korean: YES; Chinese: NO), ii) case marking (Japanese & Korean: YES; Chinese; NO) and iii) marking the right edge of relative clauses (Korean & Chinese: YES; Japanese: N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Korean and the comparison with those of English showed that long-distance dependencies with different filler-gap ordering elicit remarkably similar brain responses (i.e., sustained anterior negativit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relative clause marking in Chinese (Yang et al. 2010) and Korean and the lack of it in Japanese (Ueno & Garnsey, 2008) affect the brain response to the following head noun, suggesting more integration difficulties of head nouns in Japanese. The results overall clearly demonstrate universal parsing mechanisms underlying apparent surface differences across languages as well as language-specific parsing strategies motivated by different typological feature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is driven by a strongly predictive parsing mechanism. Upon encountering a filler, the parser postulates a gap immediately (Frazier & Clifton, 1989) and this active filler strategy constrains initial stages of structural disambiguation and thus overrides a parsing heuristics based on syntax such as Late closure (Cai et al., 2012). Experiment 2 thus investigates whether a similar parsing mechanism underlies the processing of gap-filler dependencies such that upon identifying a gap, the parser will attempt to postulate fillers as soon as possible without waiting for specific structural information.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is strategy

interacts with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similar to filler-gap dependencies. The eye-track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gap-filler dependency formation was mainly visible in later processing stages, helping readers recover from the initial misanalysi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both filler-gap and gap-filler dependency formation is driven by an active search mechanism, dependency formation still shows varying degrees of predictive parsing: compared to filler-gap dependency formation with Active filler strategy, gap-filler dependency formation with an implicit left-hand element only poses a weaker processing constraint.

The experimental results thus far suggest appar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long-distance dependencies with different filler-gap ordering. Both filler-gap and gap-filler dependencies are driven by an active search mechanism such that the parser actively forms a dependency between a (potential) gap and a (potential) filler as soon as possible without waiting for specific structural information. Likewise, both types of dependencies elicited similar brain responses. On the other hand, while filler-gap dependency formation poses a stronger parsing constraint, gap-filler dependency formation poses only a weaker one. The results then suggest that while active dependency formation is a universal parsing strategy, the interaction of the dependency formation with structural disambiguation is only structure-specific. We discuss these results in terms of cognitive economy.

References cited

- Cai, Z., Sturt, P., & Pickering, M. (2012). The effect of non-adopted analyses on sentence processing.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7(9), 1286-1311.
- Frazier, L., & Clifton, C. (1989). Successive cyclicity in the grammar and parser.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93-126.
- Kazanina, N., Lau, E., Lieberman, M., Yoshida, M., & Phillips, C. (2007). The effect of syntactic constraints on the processing of backwards anaphora.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6, 384-409.
- Ueno, M., & Garnsey, S. M. (2008). An ERP study of the processing of subject and object relative clauses in Japanes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3, 646-688.
- Yang, C. L., Perfetti, C. A., & Liu, Y. (2010). Sentence integration processes: An ERP study of Chinese sentence comprehension with relative clauses. *Brain and Language*, 112, 85-100.

<일반논문>

어말어미 ‘-지’의 의미와 common ground

이해윤 (한국외대)

본 발표에서는 어말어미 ‘-지’의 의미를 독일어의 VerumFokus와 비교하여 Common Ground 개념과 관련 지어 논의한다. 독일어의 문장유형 결정에 관여하는 C/I 위치의 어휘에 특정 악센트 부여로 실현되는 VerumFokus는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Hohle 1992, Romero & Han 2004). 한국어의 어말어미 ‘-지’는 서술문의 하위 유형으로서 그간 ‘추정’, ‘이미 앎’ 등의 개념으로 그 의미/기능이 파악되어 왔다 (장경희 1985, 박재연 2006).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독일어의 VerumFokus와 마찬가지로 Common Ground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지’의 여러 의미들이 Common Ground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차이로 구분됨을 TTR (Type Theory with Records, Cooper & Ginzburg 2013)에 의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장경희. 18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탐출판사.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태학사.

Cooper, Robin & Ginzburg, Jonathan. 2013. TTR for Natural Language Semantics. ms.

Hohle, Tilman. 1992. Uber Verum-Fokus im Deutschen. in *Informationsstruktur und Grammatik*, J. Jacobs ed. 112-141.

Romeo, Maribel & Han, Chung-hye. 2004. On negative yes/no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609-658.

<일반논문>

한국어 부정소의 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

박철우 (안양대)

이 논문은 한국어 부정문의 다중적 해석의 출현 양상에 대해 부정소의 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부정은 명제 단위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명제 단위에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 한국어에는 단형과 장형 두 가지 부정문이 있어 이 경우에 부정소의 적출도 통사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부정소 외에도, 양화사, 부사/부사절(종속접속절 포함) 등과 같이 작용역의 중의성을 가지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부정소와 상호작용하여 구조적 중의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정문의 다중적 의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보구조와도 상호작용한다. 정보구조는 다양한 문맥에 대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Dik(1981)에서 제시한 완성 초점, 선택 초점, 대치 초점 등을 유도하는 문맥들을 활용하여 부정문의 문맥을 상정해 본다. 이때 발생하는 다중적 의미는 의미론적 중의성이라기보다는 화용론적 함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위언어적 부정 현상도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구조가 문장의 다중적인 해석을 산출하기도 하지만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과 상호작용하여 그 중의성을 탈중의화하는 통사 기제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보이고, 그런 경우에 정보구조의 영향을 받은 부정문의 의미 표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담화 표상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참고문헌(선별)

곽혜영·이미선(2010), 한국어 전칭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중의성 해석에 나타나는 작용역 선호 양상, *언어* > 35-3.

구종남(1990), 부정문의 통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28호.

권재일 외(1997), 통사구조와 운율구조의 상관성 연구 - 중의성 해소 양상을 중심으로 -, <언어학> 20호.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철우(2013), 부정의 작용역에 대하여, <한국어학> 61.

서상규(1984), 부정문의 의미해석원리, <말> 9.

옥태권(1984), 국어의 초점화 현상, <박지홍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임흥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5,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Cann, R., R. Kempson and E. Gregoromichelaki (2009),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Meaning in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Dik, S. et al. (1981), On the typology of Focus Phenomena, in T. Hoekstra(ed.), *Perspectives on functional grammar*. Foris.